

野 '내란특검' 대법원장에 추천권...비토권 빼고 외환죄 추가

국힘 '독소조항' 주장 일부 수정...야권, 재추천 요구 않기로 수사 인력 155명·기간 150일...14~16일 본회의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제발의했다.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이 부결되자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주장한 부분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야권은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후보자 2명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여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담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작년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당시 여당은 이 비토권을 문제 삼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신 기존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범위에 포함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하며 "기존 특검법도 현행 헌법 아래에서 위헌적 요소는 하나도 없다는 판단이지만,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가능한 14일이나 16일 정도쯤 빠르게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라며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포해서 내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번 내란특검법안은 발의 명단을 가지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내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형태로 여야가 합의하는 좋은 모습을 국민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며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진보당 전종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연합뉴스

현재 "여론전 흔들림 없이 공정 심판 진행"

'尹 내란' 경찰청·중앙지검·군검찰 수사기록 일부 확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놓고 벌어지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장외 여론전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다"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날 탄핵 심판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면서도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과 비교할 때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5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4일에 접수돼 이달 14일에 첫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31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가 여론의 압박에 윤 대통령 측이 다른 탄핵 심판 사건의 기일을 서둘러 지정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현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전날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 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며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측은 앞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송부촉탁)해달라고 현재에 요청했고, 현재는 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가 확보한 자료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신청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져분을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1차 체포영장 관련 사건도 계속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 양곡법 설전... '계엄·탄핵' 공방

국힘 "농업법 충분한 대화 필요"...민주 "국힘, 내란사태 반성 없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사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을 두고 여야 갈등을 빚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의 재표결이 부결된 것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덕홍 의원은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법안 필요성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여야가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안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며 "반복되는 야당의 단독 통과와 정부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법안들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쌓았이 폭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민생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가 적어 폐기된 것은 유감"이라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과 탄핵도 주요 갈등 요소였다.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법치를 수호해야 할 윤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는데, 농해수위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 중 몇몇 분이 부하 수행 역할에 자행했다"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아가던 여당 의원들을 비판하고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정치공세를 퍼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그러면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인가"라고 응수했다.

정 의원은 또 "민주당은 내란죄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넣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더니,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형법상 내란죄를 빼고 심판을 하자고 하고 있다"며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런 사태는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하고 내란 행위를 자행해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에 반성과 참회를 해야지,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보당,尹 관저 방문 국힘 의원 45명 고발

"체포영장 공무집행방해"

진보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갔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장서서 내란수괴를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자 했다"

며 "국민 누구도 영장 집행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이를 방해하며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경찰은 내란 공범 '을사 45적'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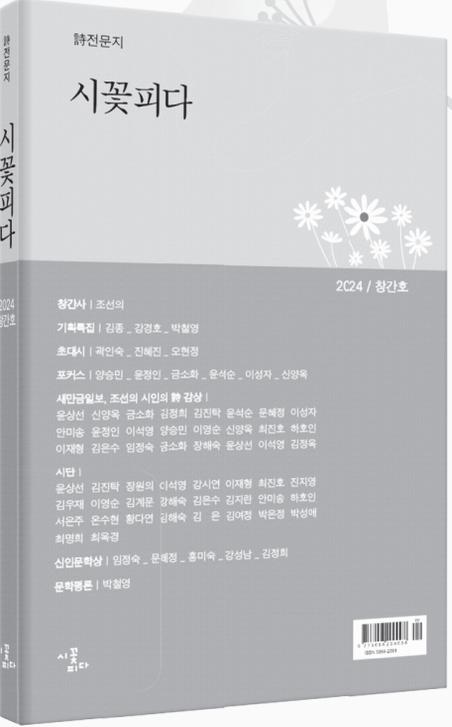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창간사 | 조선의 기획특집 | 김홍, 김경호, 박철영
초대시 | 박인숙, 진혜진, 오현정
포커스 | 양승민, 윤정민, 권소하, 윤석순, 이성자, 신양욱

세단급원보, 조선의 시인의 韓 강상!
문상선 신양욱, 권소하, 김경희, 김진혁, 윤석순, 문혜정, 이성자, 안미숙, 윤정민, 이석영, 양승민, 이영순, 신양욱, 최진호, 최호민, 이재형, 김은수, 임정숙, 권소하, 장혜숙, 문상선, 이석영, 김경옥

시단!
문상선, 김진혁, 장원의, 이석영, 김시연, 이재형, 최진호, 진지영, 김우재, 이영순, 김계문, 장혜숙, 김은수, 김지현, 안미숙, 최호민, 서은주, 윤수현, 황다연, 김혜숙, 김 은, 김여정, 박은경, 박성애, 최명희, 최옥경

신인문학상 | 임정숙, 문혜정, 홍미숙, 강성남, 김경희
문학평론 | 박철영